



조감도

대구 이천지구 아파트

Taegu-shi Icheon Apartment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대구 이천지구에 기존에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재생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현상설계 경기를 실시, 총9개 작품이 응모한 결과 무영건축(손광민)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이번 설계경기의 우수작은 담건축(맹준호)안이, 가작으로는 신한건축(최경일)안이 각각 선정됐다.

당선작

무영건축(안길원+손광민)

대지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2동
121-69번지 일원

대지면적 / 15,676㎡

건축면적 / 2,882.53㎡

연면적 / 60,456.51㎡

건폐율 / 18.38%

용적률 / 302.33%

계획담당 / 주창혁, 최대성, 조영선, 김영훈,
김영우, 최정봉, 주경호, 박은경, 김
경순, 이미애, 차병철, 임창수.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의한 근대화와 산업화의 추진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능률성 위주의 개발정책의 일괄적인 시행에 따라 삶의 질과 연관되는 그 지역의 지역특성에 따른 커뮤니티(Community)의 재구성에 관한 문제는 항상 등한시하여 온 것이 현재의 도시·건축계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기존에 살고있던 삶의 터전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재생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기존 거주민과 이주자간의 근린의식(Neighborhood)증진에 의한 커뮤니티

(Community)의 재구성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에 제시된 대구 이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상설계 공모안은 새로운 개념의 주거단지 설계적용 요소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고 참여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기존 거주민과 이주자가 상호 조화되는 커뮤니티(Community)개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단지 중심부에 구심적인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커뮤니티(Community)시설의 집약적인 배치와 주거동의 배치에 의해 구성된 개방된 오픈스페이스

(Open Space)를 보행로와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커뮤니티(Community)시설을 체계화 하였다. 또한 주변도로와 도시기반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동선 및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을 하였고 특히, 단지 동측의 35m 순환도로에서의 경관요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순환도로변에 Tower형을 배치하여 시각적 개방감과 조망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동선계획은 보도와 차도의 분리를 기본목표로 단지의 남북을 연결하는 강한 보행축을 중심으

